



Jean de Loisy
President of Palais de Tokyo

All our words, our all our songs, all our languages, are imperfect translations of our confused thoughts. When an idea forms, always below the level of intelligence, it is an uncertain field of sensations before being announced, or written, like a night sky in which a hoard of indistinct stars are glittering. If reason and grammar manage to extract violently a phrase from this amalgam, it is poetry that despite all succeeds in preserving the fertile profusion of the original idea. Such are the metamorphoses that constitute this exhibition, those transformations that shimmer with an initial sense while dissolving the frontiers.

Today Will Happen brings together 11 artists/artist duo from the French and Asian scenes who are inspired by language. The exhibition is being deployed in a climate coloured by a poem by Michel Houellebecq which has also provided its title. In it, the author describes the jaded access to self-awareness in an urban world that transforms bodies into projectiles. The works of the 11 artists/artist duo united around this poem use language as a motor for invention and the metamorphoses of form.

An analogous process of transformation has been inflicted on Michel Houellebecq's poem. Diffused through the space of the building, it is successively translated, reinterpreted, sung and distorted by a Korean poet, a group of pansori singers and a DJ, until it becomes totally unrecognisable. The poem is this used as a material that inspires, then becomes blurred and is modified once more from its association with the works in the exhibition. The artists it brings together were chosen because their works offer equivalent usages and modes of apparition: unwedded processes, ruminations, or else the echoing rumours of a poetic atmosphere. Images, deconstructions, bodily schemas grown hysterical, labyrinths of meaning allowing us to make our journey, the exploration of a disturbing thought, seeking out the geometry of its expression.

장 드 루아지
팔레 드 도쿄 관장

우리의 모든 말, 노래, 언어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불안전하게 번역한 것이다. 아이디어는 항상 지성의 수준 아래에서 형성된다. 발표되거나 글로 쓰이기 전에 그것은 수많은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밤하늘처럼 불확실한 감각의 영역이다. 이상과 문법을 통해 이 혼합물에서 어구를 맹렬하게 추출해낸다면, 시(詩)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독창적 착상의 풍성함을 성공적으로 보존한다. 그런 것들이 본 전시를 구성하는 탈바꿈(metamorphoses)이며, 초기의 감각을 일렁이며 경계를 용해시켜 없애는 변형(transformation)이다.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는 프랑스와 아시아 예술 현장에서 언어로부터 영감을 얻은 11명(팀)의 아티스트를 불러 모았다. 전시는 마셀 우엘벡의 시로 채색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 전시 제목도 이 시에서 나왔다. 시인은 신체를 투사물로 변형시키는 도시 세계에서 자기 인식에 힘겹게 접근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시를 중심으로 모인 작가 11명(팀)의 작품들은 형태를 발명하고 탈바꿈하는 모터로써 언어를 사용한다.

미셀 우엘벡의 시에도 이와 유사한 변형이 가해졌다. 시가 건물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시인, 소리꾼, DJ는 연달아 그것을 번역하고 재해석하고 노래하여 왜곡한다. 결국 원래의 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시는 불분명해지고 영감을 주는 소재로 쓰이며, 전시 작품과 연계되어 다시 한 번 수정된다. 이번 전시는 작품을 통해 대등한 어법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과정들, 반추, 또는 시적인 분위기에서 메아리치는 소문과 같은 환영(幻影)의 형태를 제시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미지, 해체, 히스테리적으로 변한 신체의 윤곽, 의미의 미로가 우리로 하여금 표현의 기하학을 찾아 여행하며 불편한 생각을 탐색하게 만든다.

김성원
아시아문화원 전시/예술감독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전시에 초청된 11명(팀)의 작가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언어'와 '번역'을 매개체로 '다가올 오늘'을 위한 특별한 서곡을 준비한다. 이 작가들이 추구하는 작업 세계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을 표현한다거나 다른 문화들에서 이질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그들이 경험한 다른 문화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연구자, 여행자, 감독, 스토리텔러가 되어 하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자신들의 문화코드를 다른 코드와 연결한다. 이러한 과정은 번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번역은 불가피하게 형언할 수 없는 것이나, 불투명한 의미/상태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전시는 바로 이러한 불안전하고 혼성적이며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탐구하며, 그것의 풍요로운 의미, 고유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전율을 보여준다.

Sungwon Kim
Artistic director of Exhibition, Asia Culture Institute

The eleven artists/artist duo invited to take part in the exhibition *Today Will Happen* represent different tradit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but they are working here and now to prepare a special overture for the “today to come” through language and translation. The artistic visions these artists pursue are not confined to simple representations of their traditions or the discovery of disparate elements in other cultures. They represent a process of exploring how to connect their own traditions with other cultures they have experienced, and what meanings can be produced thereby. Becoming researchers, travelers, directors, or storytellers as needed, they link one domain with another, their own cultural codes with different ones. It is a process made possible through translation, and these translations inevitably generate things that are inexpressible, meanings/situations that remain opaque. *Today Will Happen* delves into these states of incompleteness, hybridity, opacity, and ambiguity, showing the richness of meaning they hold—their inherent beauty and its vibration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Today Will Happen*, comes from the poem “The Art of Struggle” by the French writer Michel Houellebecq. Houellebecq's poem alludes to the “potential for translation” that set this exhibition in motion, providing an entryway for the exhibition alongside the ten artists/artist duo: Berdagner & Péjus, Yun Choi, Julien Creuzet, David Douard, Young-gyu Jang, Tarik Kiswanson, Miree Lee, Léonard Martin, Hao Ni, and Louise Sartor. The exhibition will be held at Gwangju Civic Center. Built nearly 50 years ago in the 1970s by the Gwangju-area community as a cultural space for the public, the center is now in a state of near disuse. A unique setting dominated by the tragic ruined sense possessed by long-abandoned spaces, it provided direct and indirect inspiration for new work by Miree Lee, Hao Ni, Yun Choi, and Young-gyu Jang. Lee's huge moving sculpture is like a living organism that gradually takes over the broad expanse of its stage; Choi reconfigures sculpture fragments left out of her previous work to produce numerous works of sculptural “self-renewal.” Hao Ni gathers Eastern and Western-produced wind instruments into an enormous, organic work of sound sculpture recalling some undiscovered lifeform, while Jang's work—a site-specific performance in conjunction with several singers—seeks out the phantoms of (Gwangju) sound that have glanced by over the long passage of years.

김성원
아시아문화원 전시/예술감독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전시에 초청된 11명(팀)의 작가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언어'와 '번역'을 매개체로 '다가올 오늘'을 위한 특별한 서곡을 준비한다. 이 작가들이 추구하는 작업 세계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을 표현한다거나 다른 문화들에서 이질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그들이 경험한 다른 문화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연구자, 여행자, 감독, 스토리텔러가 되어 하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자신들의 문화코드를 다른 코드와 연결한다. 이러한 과정은 번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번역은 불가피하게 형언할 수 없는 것이나, 불투명한 의미/상태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전시는 바로 이러한 불안전하고 혼성적이며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탐구하며, 그것의 풍요로운 의미, 고유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전율을 보여준다.

본 전시 제목인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는 프랑스 소설가 미셀 우엘벡의 시 〈싸움의 기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엘벡의 시는 이 전시를 가동시키게 될 ‘번역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베르다게르 & 페쥬, 최윤, 줄리앙 크뢰제, 다비드 두아르, 장영규, 타리크 키스완손, 이미래, 레오나르 마르탱, 하오 니, 루이즈 사르토르 등 10명(팀)의 작가들과 함께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전시의 문을 열게 된다. 본 전시가 전개될 공간은 70년대 건축된 광주시민회관 건물로, 50여 년 전 광주 시민단체에 의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장소다.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이 갖고 있는 비장한 폐허의 느낌이 지배하는 이 독특한 공간은 이미래, 하오 니, 최윤, 장영규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신작의 영감을 주게 된다. 이미래의 거대한 움직임은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넓은 무대를 서서히 장악하고, 최윤은 자신의 이전 작업에서 누락된 조각 파편들을 재구성하면서 수많은 “자가-갱신” 조각들을 탄생시킨다. 하오 니는 동서양에서 생산된 관악기들을 엮어서 미지의 생물체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유기적 사운드 조각을 제안하며, 여러 명의 소리꾼과 함께 하는 장영규의 장소특정적 퍼포먼스는 긴 시간을 관통하며 스쳐 지나가고 있는 (광주의) 소리의 유령을 찾아 나선다.

Dawn rises, grows, settles on the city
We've come through the night and not been set free
I hear the buses and the quiet hum
Of social exchange. I'm overcome with presence.

Today will happen. Invisible surfaces
Separate our suffering selves in the air
Then form and harden at a terrible pace;
But the body, still our pact with the body.

We've come through strain and desire
Childhood and dreams still pass us by
Not much there in a lifetime of smiling
We're prisoners in our own clear selves.

해가 오른다 커간다 도시를 굽어본다
우리는 밤을 건넜을 뿐 벗어나지 못했다
버스 소리가 들린다 사교적인 교신의
미묘한 소음. 나는 현존에 다가간다.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표피가
도처에 우리가 존재할 고통의 구획들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스스로를 형성한다 단단해진다.
그러나 몸, 몸은 귀속이다.

우리는 피로와 욕망을 건너왔으나
어린 시절 꿈의 맛을 되찾지 못했다.
우리의 미소는 더 이상 대수롭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투명함 속에 갇혀있다.



Christophe Berdaguer
Marie Péjus

The artists Christophe Berdaguer and Marie Péjus have been inspired by the drawings of hysterical gestures which Paul Richer, the French neurologist and illustrator, produced in 1879. In turn, they convert the moments of a fit—in this case interpreted by a dancer—into a video then into digital data and finally into sculptures. These movements, which announce through the body the inexpressible words of unsatisfied desires, make for a spectacle showing the tormented physical language of the subconscious.

크리스토프 베르다게르
마리 페쥬

크리스토프 베르다게르와 마리 페쥬는 프랑스의 신경학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폴 리셰(Paul Richer)가 1879년에 선보인 히스테리적인 몸짓 드로잉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경우에는 무용수에 의해 해석된, 히스테리 발작의 순간을 비디오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조각 작품을 만든다. 형언할 수 없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몸으로 표현한 이 움직임들은 잠재의식의 고통스러운 신체 언어를 스펙터클하게 보여준다.



Sculptures Hystériques, 2017
 3D printing, methylene blue
 Dimensions variable
 Private collection and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ourtesy of the artists and Galerie Papillon (Paris)



〈히스테릭한 조각품〉, 2017
 3D 프린팅, 메틸렌블루
 가변 크기
 개인,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 소장
 작가, 갤러리 파피용 제공



14

MÉMOIRES DE FEU, 2018
Set of paintings on paper
Exhibition view of *Communautés invisibles*, Marseille
Courtesy of the artists
Photo: jc Lett

〈불의 기억〉, 2018
종이에 페인팅 세트
〈보이지 않는 공동체들〉 전시 전경, 마르세유
작가 제공
사진: jc Lett



KILDA III, 2018
Chains, sound system, rubber seats
Exhibition view of *Communautés invisibles*, Marseille
Courtesy of the artists
Photo: jc Lett

〈킬다 III〉, 2018
체인, 사운드 시스템, 고무 의자
〈보이지 않는 공동체들〉 전시 전경, 마르세유
작가 제공
사진: jc Lett

In *Self-Renewal of Vertebrates*, pieces that were omitted or not selected from Yun Choi's previous works were self-renewed in order to become vertebrates.

Advice for these pieces to become vertebrates are as follows:

- Extend your neck, arms, and legs as much as possible.
- Make the footsteps silent, though footprints should be left first.
- Carry a mirror in front of you wherever you go.
- Follow the examples of surrounding beings, but try to be better than them.
- Grow flowers and cash at the veranda to present for someone.
- Refer to both the honeycomb and ant's nest for a dwelling.
- Keep alien creatures out of the window and keep the distance.
- Practice having an out-of-body experience while dreaming.
- Collect shiny garbage from the streets to keep it in your home.
- Take out your intestines right after you see a natural enemy.
- If there is an error in the update, it should be stuffed.
- Etc.

〈척추동물의 자가-갱신〉은 최윤의 이전 작업에서 누락, 탈락한 조각이 척추동물이 되고자 '자가-갱신'한 작업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척추동물이 되기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 목, 팔과 다리를 최대한 길게 늘일 것.
- 발소리는 내지 말되 발자국을 가장 먼저 남길 것.
- 어딜 가나 눈앞에 거울을 지니고 다닐 것.
- 가까운 주변을 따라 하되 더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 누군가에게 선물할 꽃과 현금을 베란다에서 기를 것.
- 주거지에 관해서는 벌집과 개미집을 모두 참고할 것.
- 외계 생물은 창밖에 두고 거리를 유지할 것.
- 꿈을 꾸면서 유체이탈을 하는 연습을 할 것.
- 거리의 반짝이는 쓰레기를 집 안에 모아 둘 것.
- 천적을 만나면 먼저 창자를 꺼내 보일 것.
- 갱신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박제할 것.
- 기타 등등.



Self-Renewal of Vertebrates,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Gwangju

〈척추동물의 자가-갱신〉,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작가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Julien Creuzet's work generally combines poetry, song, images and the objects in installations to be walked through. They make for landscapes whose elements, like the words of a poem, are precisely woven together, while giving free rein to the imagination. The open exchange between the work and the visitor raises the idea that neither the creator's identity nor the collective identity are set in stone. This exchange takes place with others, without any denial of the self. *Maïs Chaud Marlboro* is the artist's first virtual reality piece. It concerns the farming and distribution of maize, from pre-Columbian Mexico to Europe, and, in particular, in the deprived district of Barbès in Paris. A chant gives the exhibition its ambient voice, while images of Mexican landscapes and sites, as well as European maize fields, are combined.

줄리앙 크뢰제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 노래, 이미지, 오브제를 설치 작품으로 결합하여 관객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 각 요소는 시의 어휘처럼 서로 정확하게 직조되어 풍경을 이루고, 이것은 상상력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부여한다. 작품과 관객 사이의 열린 교류는 창작자의 정체성은 물론 집단의 그것 역시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교류는 자아를 조금도 부인하지 않은 채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뜨거운 옥수수 말보로(Maïs Chaud Marlboro)>는 작가의 첫 VR 작품이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멕시코부터 유럽, 특히 파리의 빈곤한 바르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 재배와 유통을 다룬다. 전시 전반에 찬트가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멕시코의 풍경과 장소, 유럽의 옥수수 밭 이미지가 겹쳐진다.

Maïs Chaud Marlboro
Crack cracker
Seated absent
Standing full of gent
Navigate navigate
Solomon alone
under the molecule
Phew taf relief
when it makes bubbles
Grain by squeaky grain
Tooth for tooth
Great forgiveness
Stubbornly stubborn
abandonment
Aunty Mamie Haiti beards
Mom sadness head
Tell me she is this tigress
Claw Subutex slap subutex
Hot finger under the flint
Charcoal black finger
Smoked in the
Taxi rank
Assaulted wanderer
Give up a moment
Under the bridge at the top
Do you believe in white eyes
I lost hooked
Cross Jesus is my rock
Hanged.

I lost
At the end of the train
I feel good
I feel good
Under the Barbès bridge., 2018
 Virtual reality headsets, metal, plastic, fabric, rope, net, paint, vinyl films
 Dimensions variable
 Co-production: Fisheye
 Courtesy of the artist

<뜨거운 옥수수 말보로
 부쉬라 크래커
 앉아 있는 부재
 서 있는 신사 무리
 길을 찾자 길을 찾자
 솔로몬 혼자서
 분자 밑에서
 휴우 두려움 안도감
 거품이 생기면
 끼익 낱알 알알이
 이에는 이
 위대한 용서
 완고하게 완고한
 포기
 마리 이모 아이티 턱수염
 엄마 슬픔 머리
 말해줘요 그녀가 이 호랑이라고
 활귀어 서부텍스 철썩 때려 서부텍스
 부싯돌 아래 뜨거운 손가락
 검은 숯 손가락
 택시 정류장에서
 훈제되네
 폭행당한 방랑자
 이 순간을 포기해
 맨 위 다리 아래서
 넌 하얀 눈을 믿니
 갈고리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내 바위예요
 매달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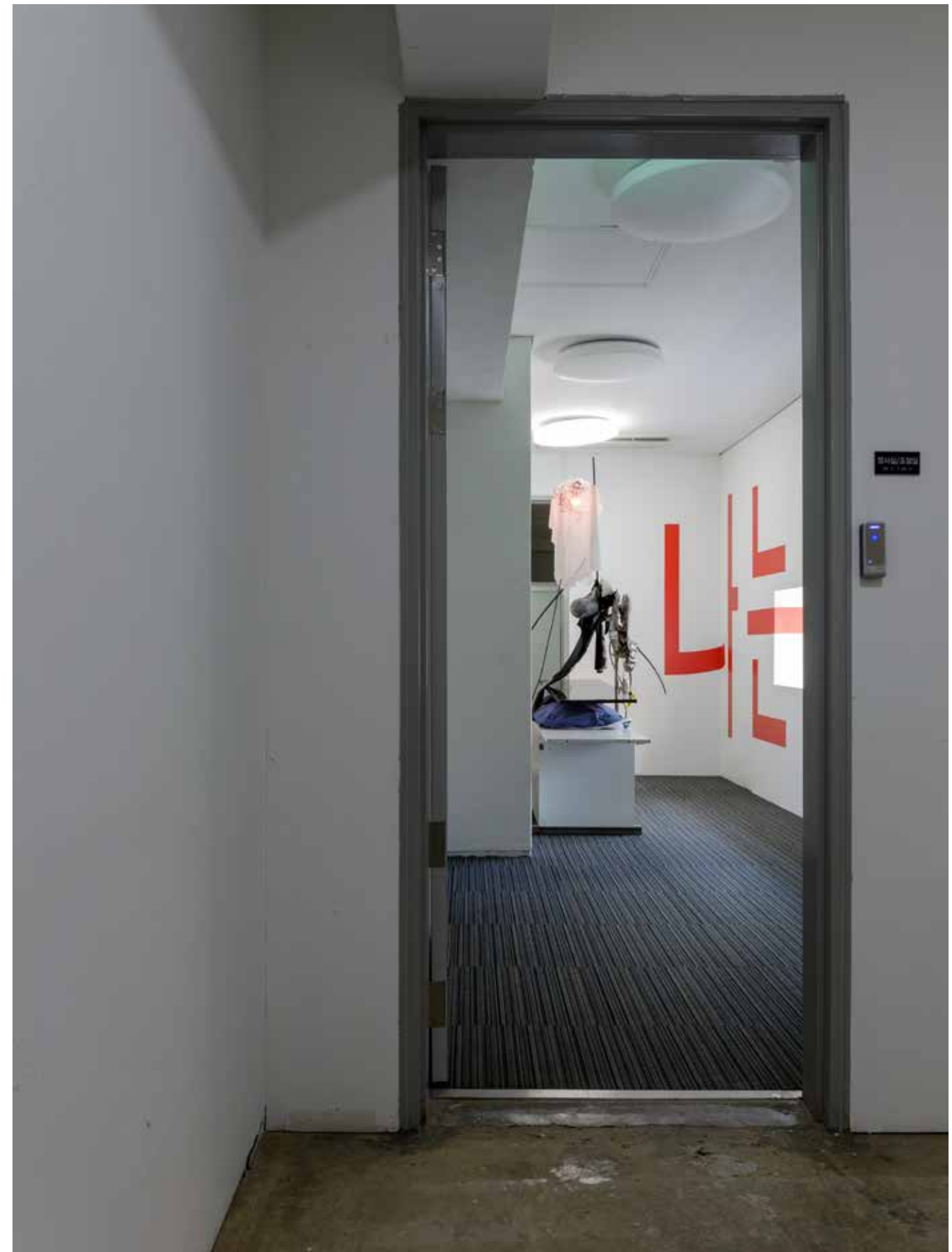
잃어버렸어
 기차 끝에서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바르베 다리 아래서., 2018
 VR 헤드셋, 금속, 플라스틱, 패브릭, 로프, 그물, 페인트, 비닐 시트
 가변 크기
 공동 제작: 피쉬아이
 작가 제공





David Douard takes his inspiration from the flows that run through the real and virtual networks we frequent. The internet or personal mental processes distil the alcohol of our thoughts. Anonymous poems and urban emotions run through our bodies and modify them. Sculptures then become organs which receive and transform forms and our unstable identities. The body which is then formed is at once a mouth, a stomach, an organ and a face. It is the viral image of an inner life, new words, an irresolute language stuttering out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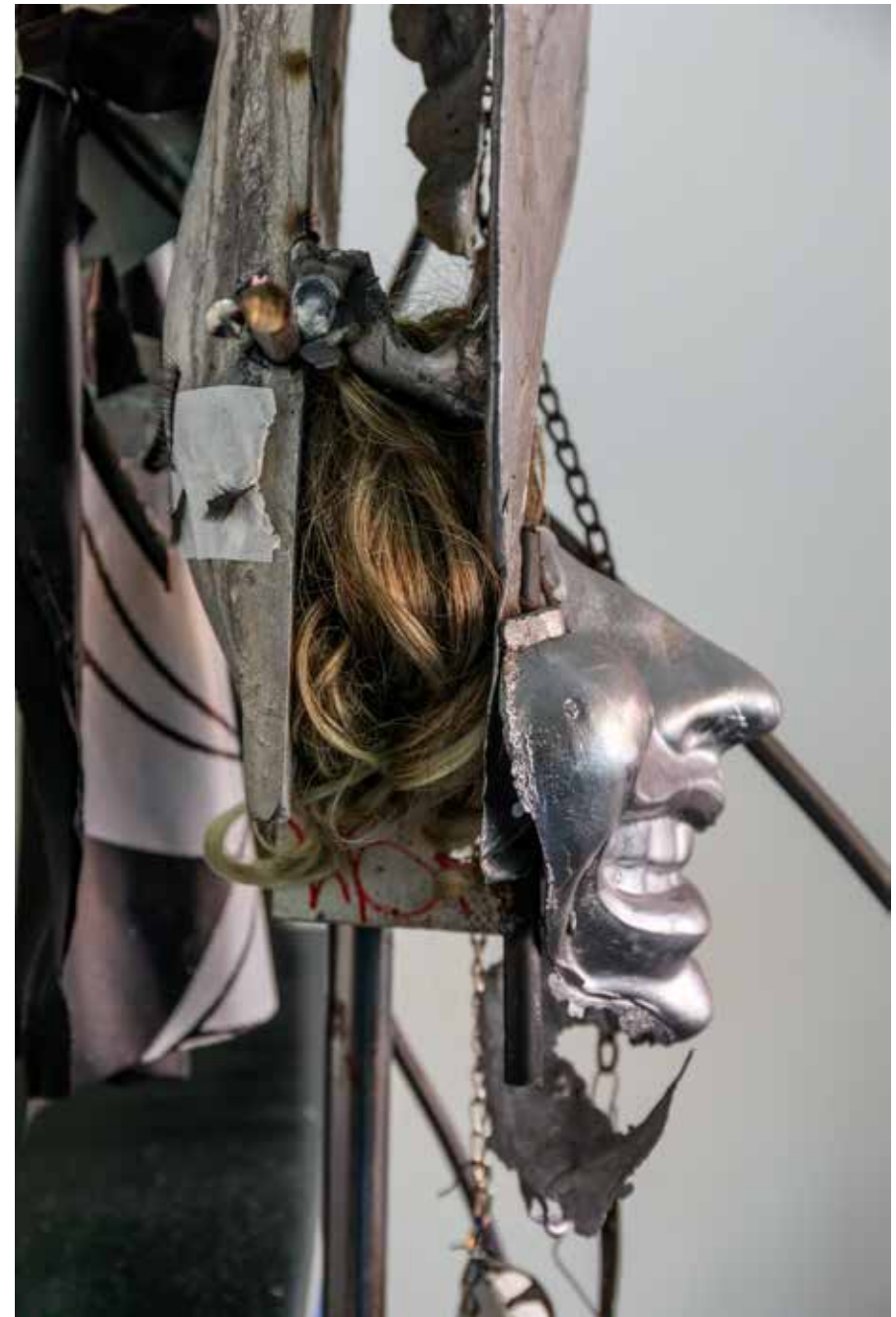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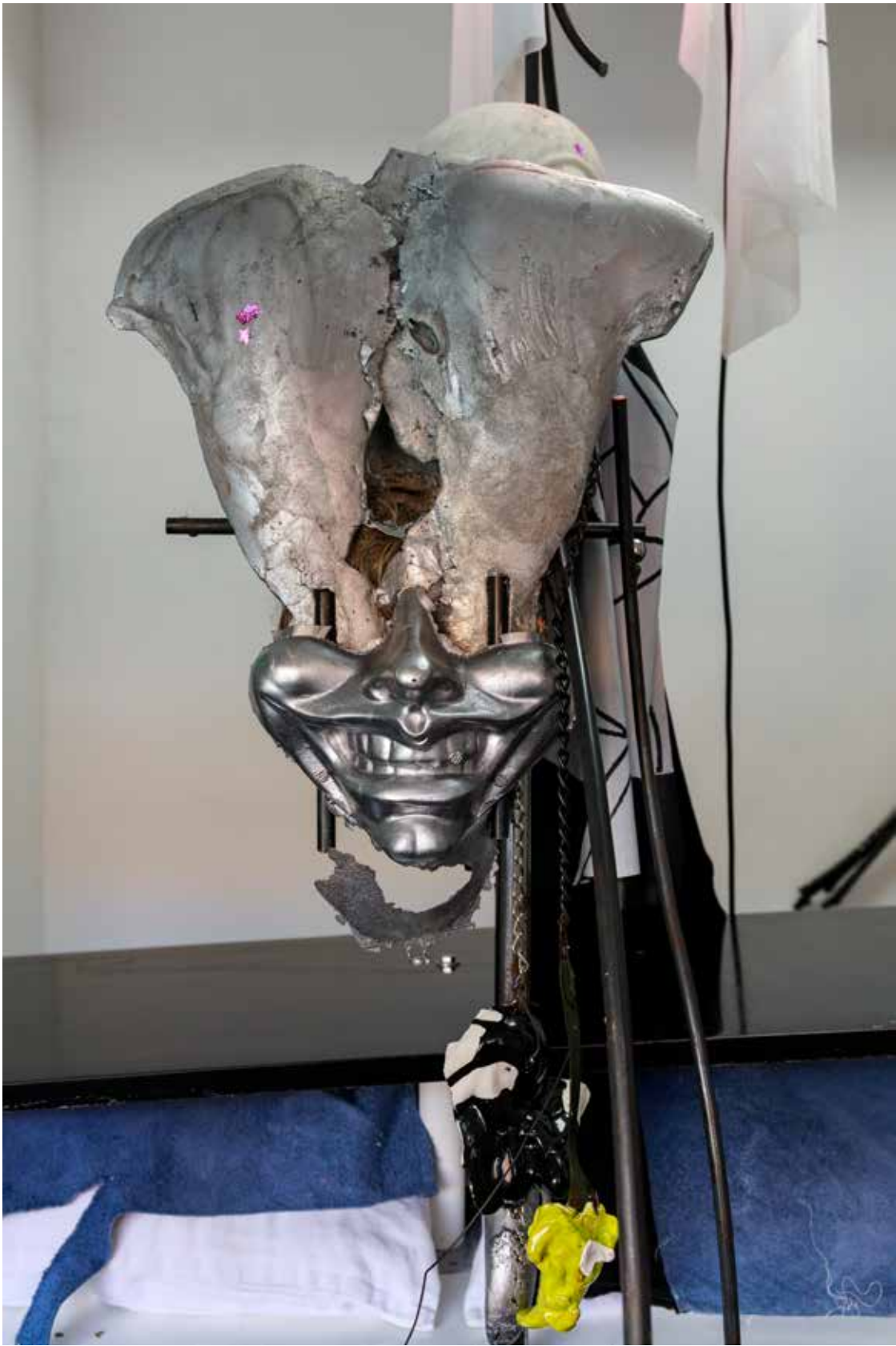
다비드 두아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실제 및 가상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흐름에서 영감을 얻는다. 인터넷이나 개인의 정신적 과정은 생각이라는 알코올을 증류시킨다. 익명의 시(詩)와 도시적 감성은 우리 몸을 관통하고 변화시키며, 조각품은 형태와 우리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기관이 된다. 이때 형성되는 몸은 즉시 입, 위, 기관, 얼굴이 된다. 그것은 내면의 생명과 새로운 어휘, 형태를 더듬더듬 뱉어내는 우유부단한 언어에 대한 바이럴 이미지이다.



I am, 2018
Aluminum, wood, synthetic hair, metal, plaster, leather, ceramic, paper
190 × 100 × 200 cm
Courtesy of the artist

〈나는〉, 2018
알루미늄, 목재, 인조 머리카락, 금속, 석고, 가죽, 세라믹, 종이
190×100×200cm
작가 제공







For this exhibition, Michel Houellebecq, the poet, essayist, novelist and filmmaker, has given us a poem that provides the show's tone, as well as two photographs. For him, poetry, which is linked to the magical state of the human mind, is unsuited for the transportation of information other than basic bodily and emotional sensations, precedes the appearance of the objective attestations that language has subsequently developed. With a desire to give an objective "framework" to reality, he uses poetry and photography as two tools allowing him to mark out an emotional surface and an objective vision of our world. Neither of them has an exit, nor an exterior, nor a possibility for withdrawal.

시인, 수필가, 소설가 그리고 영화제작자인 미셸 우엘벡은 이 전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와 사진 두 점을 주었다. 시는 인간 정신의 마술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시는 신체적, 정서적 감각 이외의 정보 전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언어가 나중에 발달했다는 객관적 증거보다 앞서 등장한다. 작가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틀"을 제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시와 사진을 도구 삼아 정서적 표면과 세상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표출한다. 두 가지 도구 중 어느 것에도 출구가 없다. 외부도 없고, 철회의 가능성도 없다.

Inscription #013, 2016
Print on plastic
303 × 48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ir de Paris (Paris)

〈비문 #013〉, 2016
플라스틱 위에 프린트
303 × 485 cm
작가, 에어 드 파리 제공





Time to place your bets



The question began with the discovery of traces left behind by a person at Songjeong Railway Station in Gwangju. It is a thought process that I have carried while observing the same kinds of traces all around the city center. I seek a phantom of sound that has glanced by innumerable spaces all through the past and into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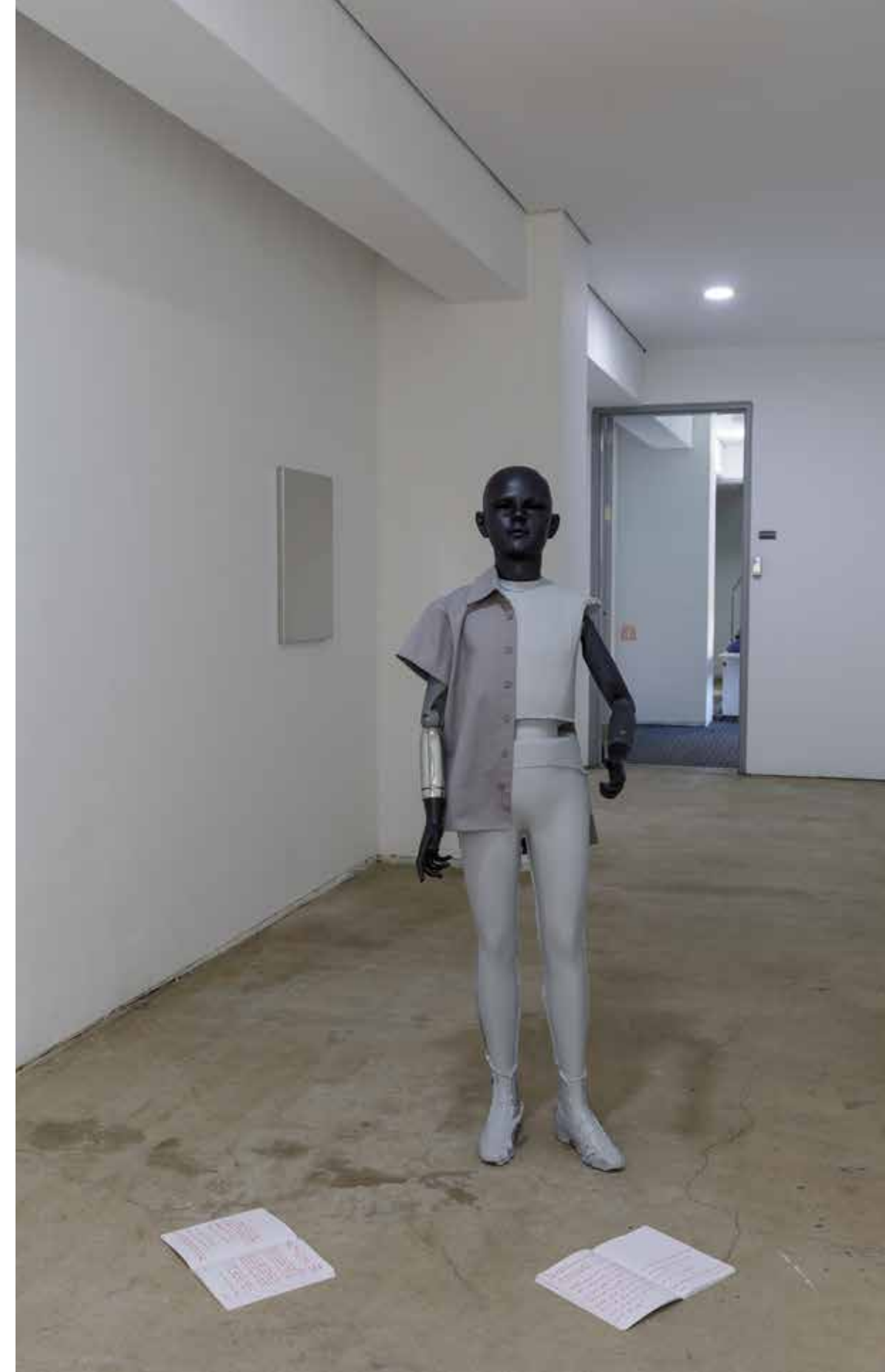
광주 송정역에서 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에서 질문이 시작되었다. 시내 곳곳에서도 동일한 흔적을 목격하면서 사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긴 시간을 관통하여 현재에도 수 많은 공간을 스쳐 지나고 있는 소리의 유령을 찾아간다.





The work of Tarik Kiswanson combines sculpture, performance and poetry to create situations that de-structure ordinary perceptions. Playing on doubles, shifting from form to sound, with the mutation of poetry into rhythms and then song, all of his forms shift in this way to become vibratory, optical or sonic phenomena. For the exhibition, he has created a new sculpture and a performance embodied by two young Korean twins. These works are then activated by the presence of visitors, while providing them in return with their own instable, hazy or diffracted images.

타리크 키스완손의 작품은 조각, 퍼포먼스, 시를 결합하여 일반적인 인식 구조를 해체하는 상황을 만든다. 형태는 소리로 전환되고, 시는 리듬으로, 그 다음 노래로 변형되는 이중 플레이를 통해 그가 만든 형태는 진동, 광학, 혹은 음파 현상이 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새로운 조각 작품과 한국인 쌍둥이 어린이가 구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관객이 있음으로써 활성화되는 한편, 관객들에게 그들 자신의 불안정하고 흐릿한, 혹은 회절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Birth, 2017
Various metals, 120 × 60 × 4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lmine Rech Gallery
(Paris/Brussels/London/New York)

〈탄생〉, 2017
다양한 금속, 120 × 60 × 40cm
작가, 알민 레쉬 갤러리 제공



The Departed, 2018
Bronze
130 × 60 × 4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carlier | gebauer (Berlin)

〈망자(亡者)〉, 2018
청동
130 × 60 × 40 cm
작가, 카를리에 게bauer어 제공



The Other Side of the Lip, 2018
Performance
Courtesy of the artist



〈입술의 이면〉, 2018
퍼포먼스
작가 제공



Mother Forms, 2018
 Fondation Ricard
 Photo: Aurélien Mole

〈모(母)의 형태〉, 2018
 리카르 재단
 사진: 오렐리앙 몰



AS DEEP AS I COULD REMEMBER, AS FAR AS I COULD SEE, 2018
 Lafayette Anticipations
 Photo: Martin Argyroglo

〈기억할 수 있는 한 깊게, 볼 수 있는 한 멀리〉, 2018
 라파예트 앙티파시옹
 사진: 마르탱 아르기로글로



When I perceive the world, there is an image of falling, a sudden descent. The purpose of my art practice is to embody the energy that is generated in this process of falling. (...) To date, I have approached my practice with the minimum amount of irony. I made most of my work either immersed or driven. Labouring, affective body as a subject of art-making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me over the years. By often choosing sculpture as my main medium, it deprives me of a sense of distance between myself and art making. This tendency eventually has allowed me to work from inside the practice.

(...) Hysteria/Elegance/Catharsis; These seemingly mismatching concepts each connote an intimate but secular side of our psychology. Hysteria emerges when one questions her symbolized self, namely, what exactly is it that makes me an artist? Elegance revolves around the notion of distance/aspiration. Catharsis is a contemporary, tactical experience of how we extract theatrical pleasure in our everyday sober context. (...)

여기에 어떤 갑작스러운 떨어짐이 있다. 내 작업이 하는 일은 이 낙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작업물로 구현해내는 것이다. (...) 여태껏 나는 최소한의 거리 두기를 통해 작업을 대해왔다. 내 작업의 대부분은 내가 작업 안에 파묻힌 채로, 작업이 나를 물고 가는 대로 만들어졌다. 근 몇 년 간 노동하는 정동적 몸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입체 매체를 다룬다는 것은 작업과 몸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수단이었다. 이런 것들이 작업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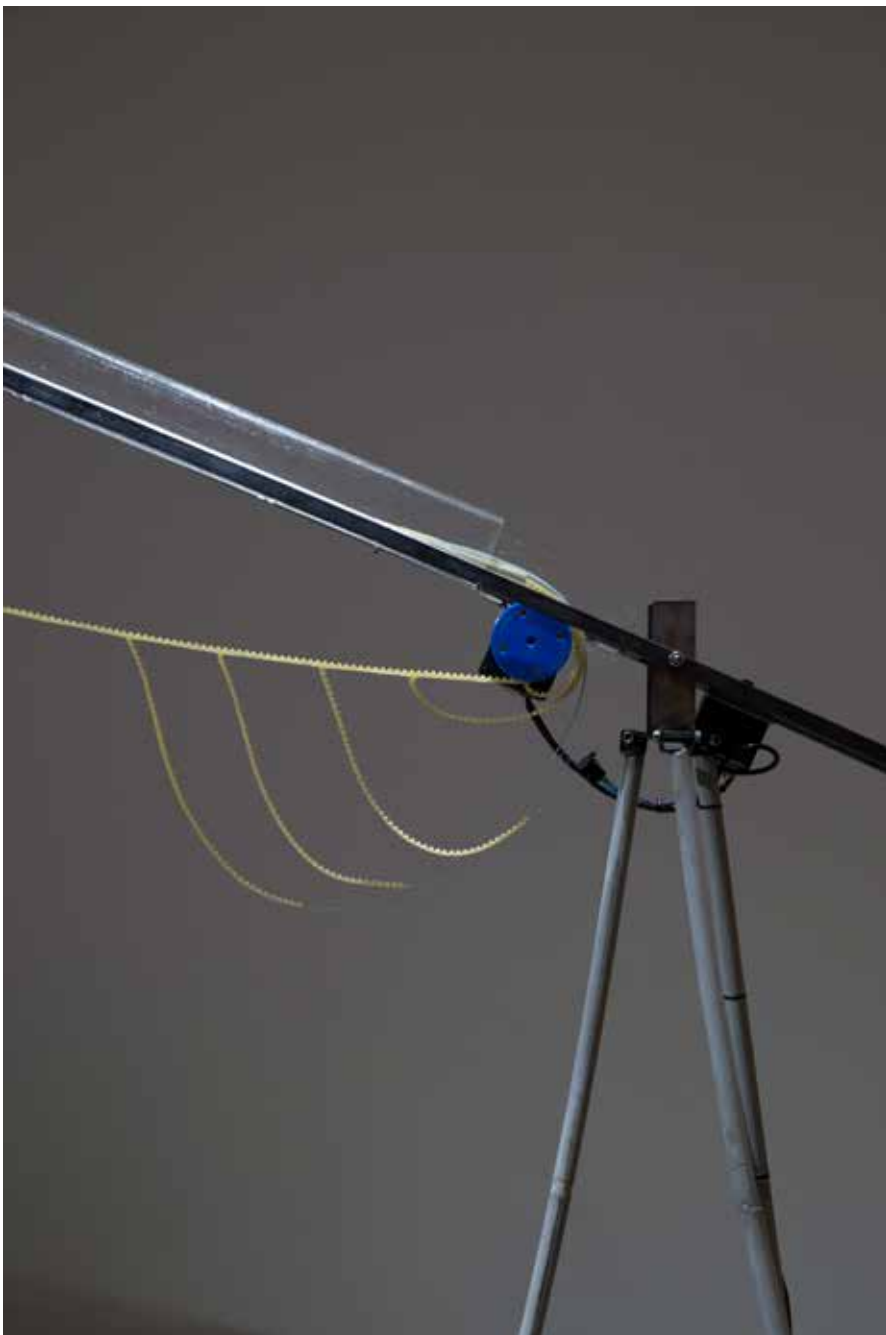
(...)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언뜻 보기에 서로 닿지 않는 이 세 가지 정동은 내밀하면서도 세속적인 인간 심리를 지시한다. 히스테리는 주체가 상징적 자아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 발생한다. ('나를 예술가로 만드는 게 무엇이지?') 엘레강스는 거리(박탈)감과 동경이라는 감상 사이를 맴돈다. 카타르시스는 멀쩡함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일상으로부터 극적 쾌락을 추출해내는 현대인의 전략적 기예이다. (...)



Hysteria, Elegance, Catharsis; words were never enough, 2018
Motor, silicone and silicone oil on plastics, steel lines, other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Gwangju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말해진 것들은 한 번도 충분한 적이 없었다〉, 2018
모터, 실리콘, 실리콘 오일, 비닐, 철선,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작가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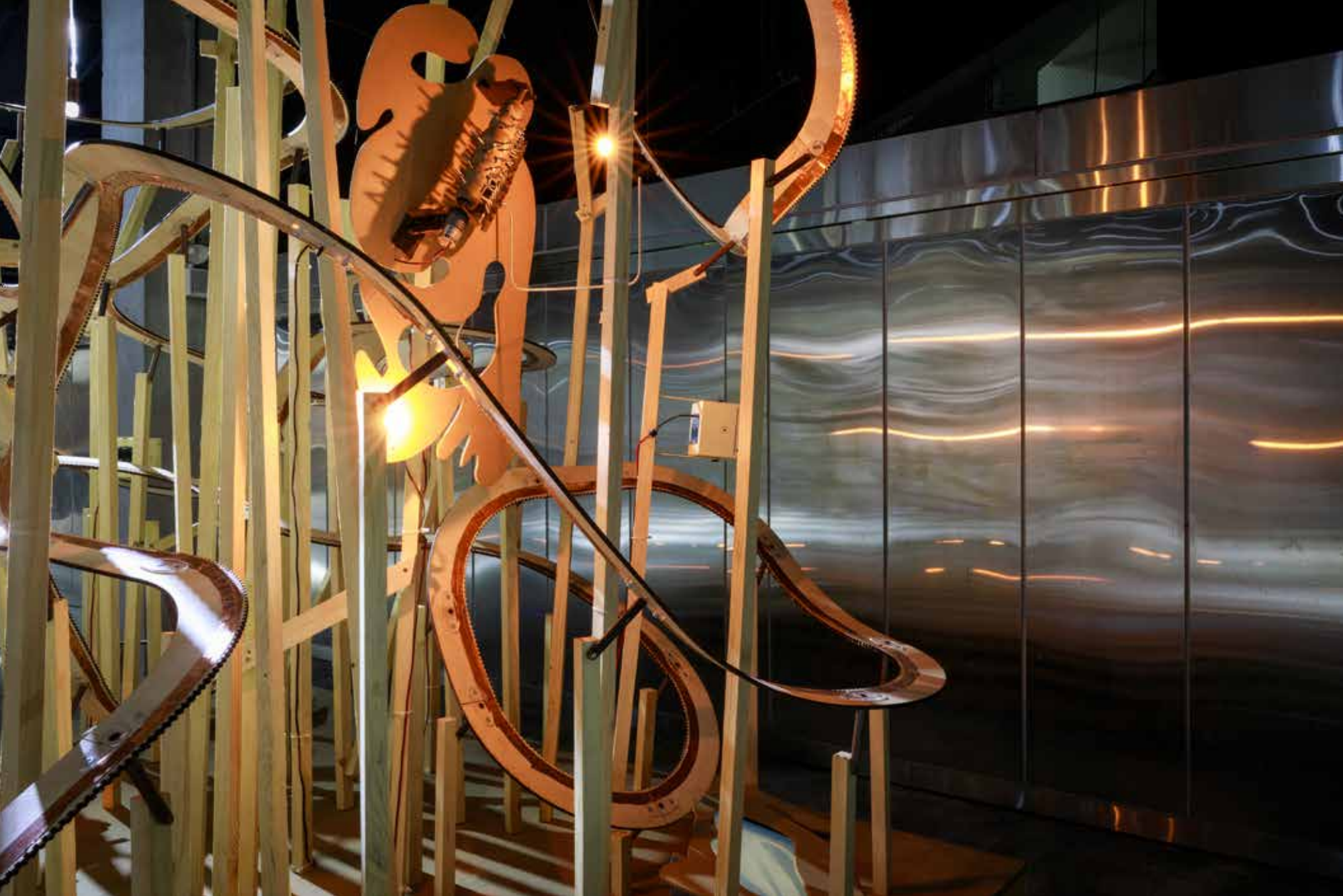
Support, Lubricate, Rotate, Climb, 2017
 Urethane, motor, cement and other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Hyeon Jung Kwon

〈지지하고, 미끄럽게 하고, 돌아가고, 전진하라〉, 2017
 우레탄, 모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사진: 권현정



Hysteria, Elegance, Catharsis; the islands, ongoing from 2017
 Series of human-sized sculptures
 Dimension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Cheolki Hong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 2017년부터 계속
 사람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의 여러 가지 조각들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사진: 홍철기



레오나르 마르탱은 주로 언어에서 비롯된 작품을 만들어왔다. 그의 작품은 특정 책의 구조에서 영향을 받아 형태나 조각 혹은 환경이 된, 텍스트 또는 문학 작품이나 다름없다. <결코 피할 수 없는(Echappée guère)>은 제임스 조이스의 글에서 내러티브와 건축적 구조를 취한 설치 작품으로, 이 아일랜드 출신 작가의 다중적인 목소리와 그가 지나온 길을 차용해 더블린 오디세이를 재연한다. 인형들은 각자의 경로를 따라 그림자를 드리우고 빛을 비추며 소리와 빛의 미로를 만든다. 조각조각 이어 붙인 이 혼란스럽고 기발한 작업은 영화의 기원과 인간의 연약함을 환기시키는 기술적 해법을 더듬거리며 전달한다.

The works of Léonard Martin have most frequently been created through language. They are texts, or literary works that have become a form, sculpture, or environment under the effect of the structure suggested by the books in question. *Echappée guère* is an installation that takes its narrative and architectural structure from the writings of James Joyce. Using the Irish writer's multiple voices and pathways, this piece replays a Dublin Odyssey through a labyrinth of sound and light, run through by puppets, which project their shadows or light up, as they progress along their pathways. This chaotic and ingenious work, which has been pieced together, stammers out technical solutions evoking the beginnings of cinema and the fragility of our 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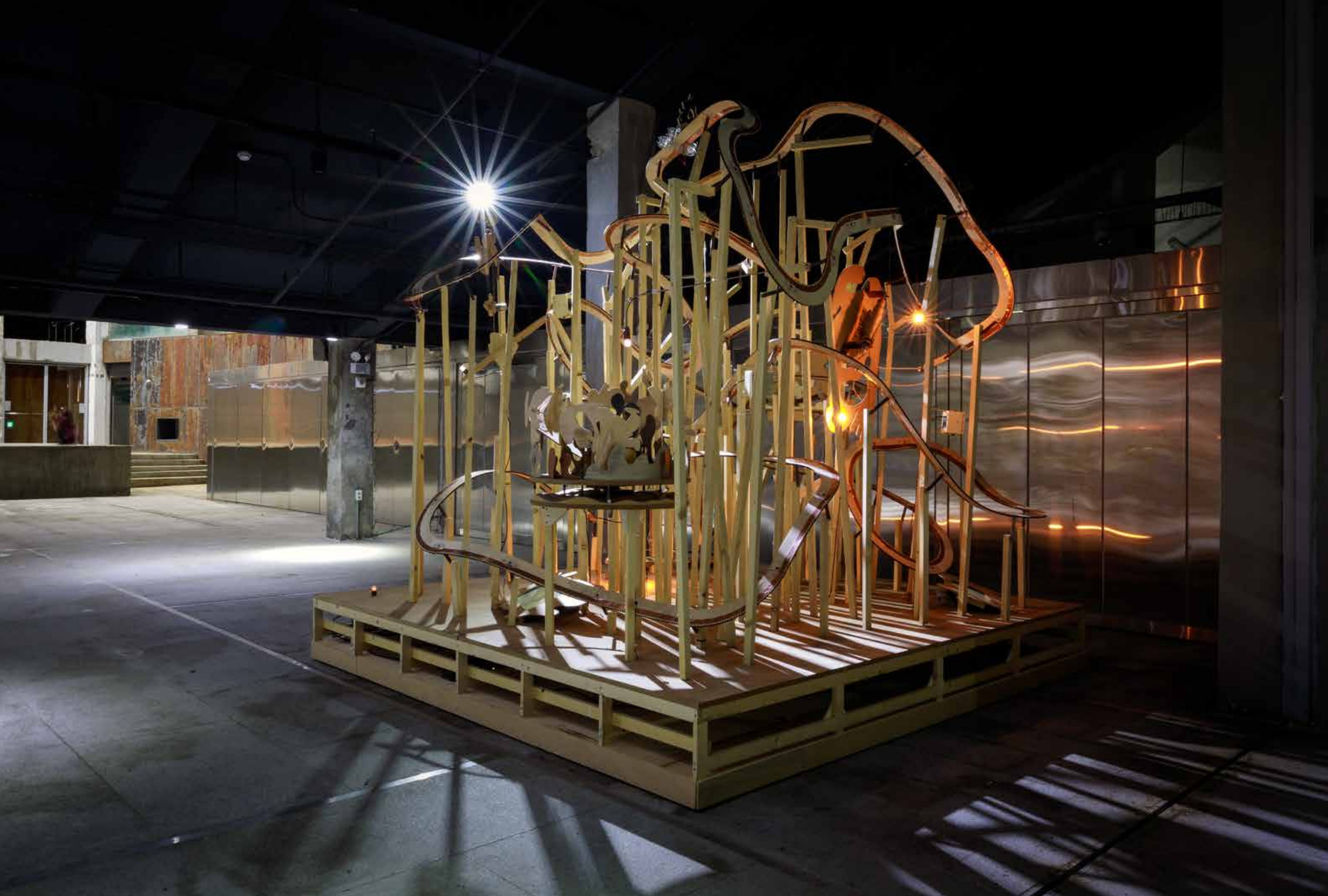




Table de tournage, 2015
Various materials

〈시청각 테이블〉, 2015
다양한 재료



Table de tournage, 2017
Various materials

〈시청각 테이블〉, 2017
다양한 재료



〈구조 연구 V〉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 연구(Structure Studies)〉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 시리즈는 소리와 사물, 그리고 폭력의 관계를 탐구하는 퍼포먼스와 조각 설치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작품은 동서양에서 대량 생산된 값싼 관악기들을 과도하게 조작하고 엮은, 커다란 플라스틱, 강철 구조물이다. 강철 구조물의 표면은 인공 땀과 인공 소변으로 처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더 많이 슬게 했다. 작품의 사운드는 두 개의 타이머 세트가 에어 콤프레서 세 개와 조각품을 연결하는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함으로써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도록 설정되었다.

Structure Study V is the latest work of an on-going series called *Structure Studies*, which are performances and sculptures tha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 objects, and violence. In this work, various cheap and mass-produced wind instruments from both the east and the west are heavily manipulated and woven into a large plastic and steel structure. The surface of the steel structure is treated with artificial sweat and urine to induce rust that will grow over time. The sound of the sculpture is programmed to be randomized through two sets of timers that control a series of pneumatic solenoid valves between the three air compressors and the sculpture.

Structure Study V, 2018
 Plastic recorder flutes, bamboo flutes, sheng, cow horns, toy trumpets, air compressors, pneumatic hoses, solenoid air valves with timers, melted ABS plastic, artificial sweat and artificial urine on PVC plastic and mild steel
 Approx. 190 x 250 x 250 cm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Gwangju
 Supported by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aiwan

〈구조 연구 V〉, 2018
 플라스틱 리코더, 대금, 생, 소뿔나팔, 장난감 트럼펫, 에어 콤프레서, 공압 호스, 솔레노이드 밸브, 타이머, 녹인 ABS 플라스틱, 인공 땀, 인공 소변, PVC 플라스틱, 연강
 약 190 x 250 x 250 cm
 작가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지원: 대만국립문화예술재단





Night II, 2014

Mineral oil on monofilament, water pumps inside spray painted Igloo coolers, resin hardened T-shirt, hydrocal casts of balaclava masks and fist wearing half finger gloves. Superglue hardened necklaces, splashed lead solder, plastic casts of "survivor tree" souvenir key chain leaves from the 911 memorial museum and black river rocks all inside wooden structure with two reservoirs for mineral oil. BMW headlights embedded in wall
152 x 152 x 214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Hao Ni

〈밤 II〉, 2014

미네랄 오일, 모노필라멘트, 양수기, 스프레이 페인팅 된 이글루 아이스박스, 수지 경화된 티셔츠, 발라클라바와 반장갑을 낀 주먹의 하이드로칼 주물, 강력접착제로 굳어진 목걸이, 떨어진 땀남, 911 메모리얼 박물관 열쇠고리 기념품에 달린 "생존자 나무"의 플라스틱 주물, 검은 강돌, 미네랄 오일 저수지를 위한 목조 구조물 두 개, 벽에 붙은 BMW 전조등
152 x 152 x 214 cm
작가 제공
사진: 하오니



Scores for Structure Study IV, 2015

Positively phototactic nocturnal flying insects on paper inside plastic sheet, protectors with dry erase marker on top of sheet protectors
21 x 29 cm each, 8 in total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Hao Ni

〈구조 연구 IV를 위한 악보〉, 2015

양의 주광성을 지닌 야행성 곤충, 종이, 플라스틱 판 보호장치 위에 보드마카
각 21 x 29 cm, 8점
작가 제공
사진: 하오니

Louise Sartor makes small-format paintings on found and occasionally ripped-up pieces of paper, wood or cardboard. They are scenes of ordinary lives, stolen moments, or passing figures. Louise Sartor paints the fleeting reality of modern life. This form of freeze-framing is both banal and touching, as the urban lives that cross through her paintings are projectiles clothed with interchangeable identities. They have "come through strain and desire." They are our lives placed in an ephemeral setting; our emotions that have been grasped before fleeing.

루이즈 사르토르는 우연히 발견한 (때로는 뜯어낸) 종이, 목재, 카드보드지 조각에 작은 크기의 그림을 그린다. 평범한 삶, 잃어버린 순간들 혹은 흘러가는 인물들의 장면을 포착하여 현대적 삶의 덧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정지 화면 형식은 진부하면서도 감동적인데 그것은 작업에 등장하는 도회적 삶들이 상호 교환 가능한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로와 욕망을 건너왔다." 그들은 인생이 무상한 우리의 모습이며, 미처 달아나기 전에 포착된 우리의 감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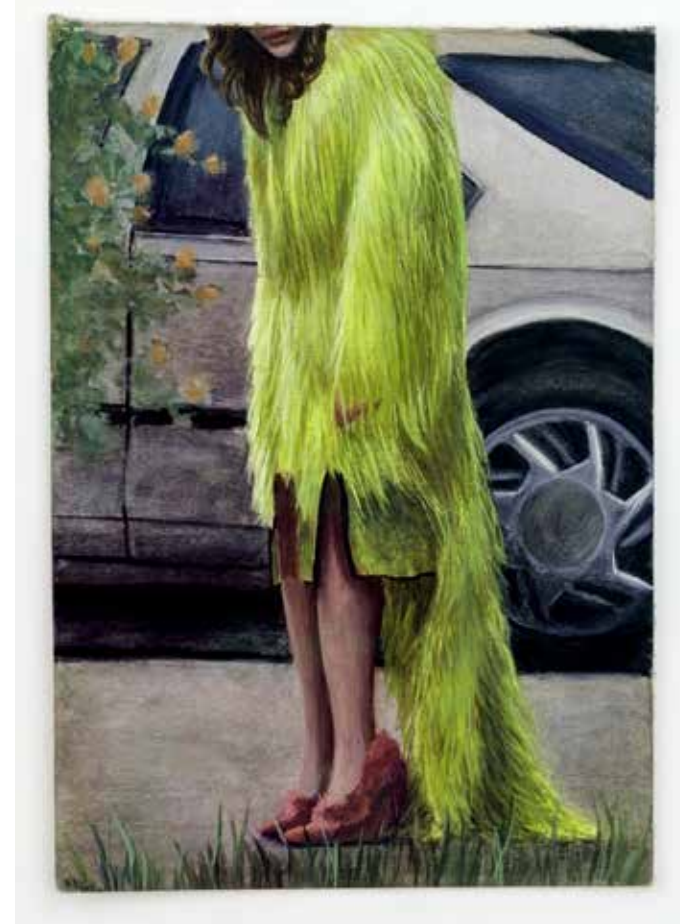
Voicemail, 2018
Gouache on cardboard
15.5 x 8.5 cm
Courtesy of the artist

〈음성 메일〉, 2018
카드보드지에 과슈
15.5 x 8.5 cm
작가 제공



Sent 7:14 PM, 2018
Gouache on wood
18 x 12 x 5 cm
Courtesy of the artist

〈7:14 PM에 전송〉, 2018
나무에 과슈
28 x 12 x 5 cm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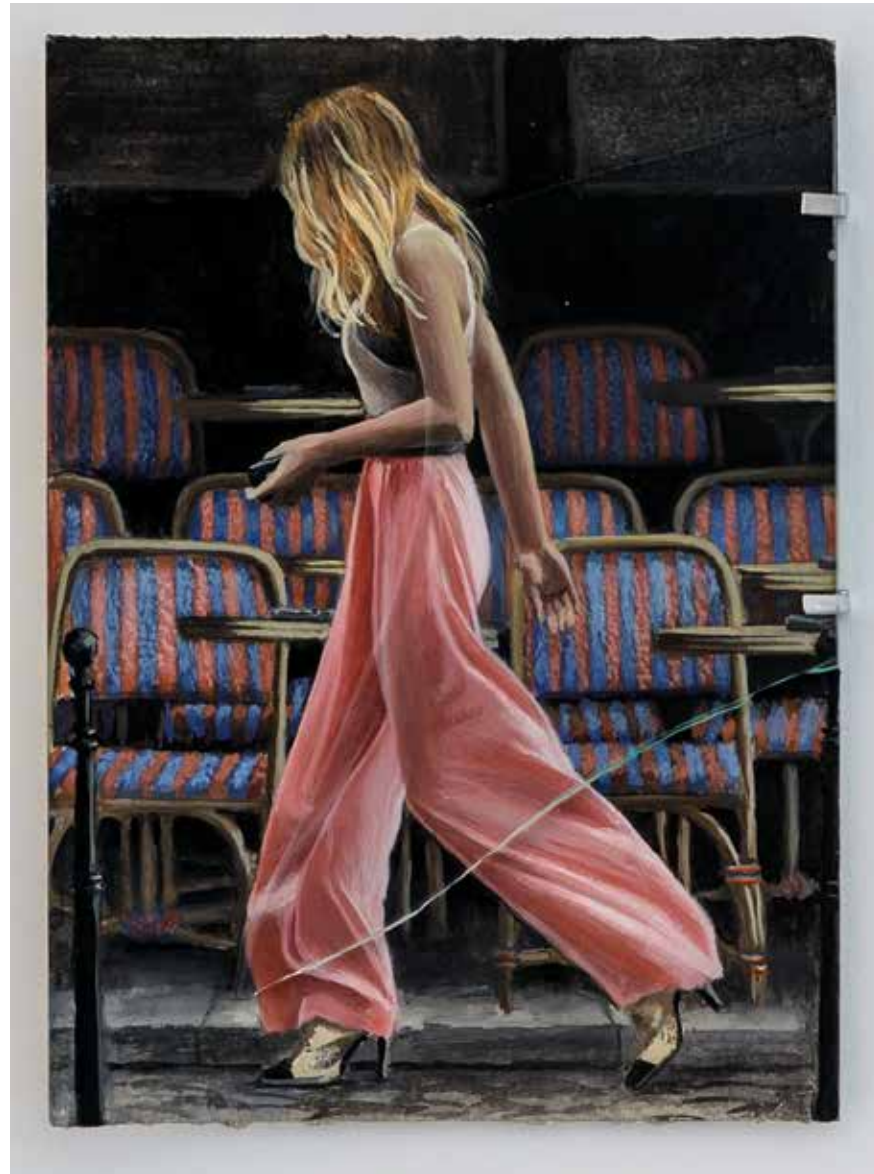
Grinch, 2017
Gouache on cardboard
17.5 x 12 cm
Collection Axel Dibie (Paris)
Courtesy of the artist

〈그린치〉, 2017
카드보드지에 과슈
17.5 x 12 cm
액셀 디비 소장
작가 제공



Soucis, 2017
Gouache on kraft envelope
20 x 12 cm
Private collection (Paris)
Courtesy of the artist

〈근심〉, 2017
크라프트지 봉투에 과슈
20 x 12 cm
개인 소장
작가 제공



Out and About in Saint Germain, 2017
 Gouache on paper and broken glass
 16 × 12 cm
 Collection Gilles and Marie Françoise Fuchs (Paris)
 Courtesy of the artist

<생 제르맹 밖과 주변에서>, 2017
 종이와 깨진 유리에 과슈
 16 × 12 cm
 질, 마리 프랑수아즈 푸흐스 소장
 작가 제공



Payphone, 2017
 Gouache on wooden case
 25 × 14 × 6 cm
 Private collection (Paris)
 Courtesy of the artist

<공중전화>, 2017
 목재 케이스에 과슈
 25 × 14 × 6 cm
 개인 소장
 작가 제공

BERDAGUER & PÉJUS

Christophe Berdaguer b. 1968
Marie Péjus b. 1969
Live and work in Marseille

Solo exhibitions

2018
Communautés invisibles, Friche la Belle de Mai, Marseille

2017
Puzzling Questions, Galerie Papillon, Paris
Mexico68, Artorama, Mécènes du sud, Marseille
Sine materia, Le Narcissio, Nice

2016
Y 40 (Autorépliquant), Jardin des Tuileries, Paris

2015
Berdaguer & Péjus, La Maréchalerie, Versailles
Fantôme sans château, Le Parvis, Tarbes

2014
Jardin épileptique, installation éphémère, Jardin des plantes, Montpellier
Berdaguer & Péjus, Musée Rodin, Meudon

2012
Insula, IAC, Villeurbanne

2011
Jardin d'addiction, Abbaye de Silvacane, La Roque-d'Anthéron
Rosabel believe, Galerie de Marseille, Marseille

Group exhibitions

2018
Assemblée, Centre d'Art la Synagogue de Delme, Delme

2017
Le bruit des choses qui tombent, FRAC PACA, Marseille
Utopia/Dystopia, MAAT, Lisbonne
De nature en sculpture, Villa Datris, L'Isle-sur-la-Sorgue

2016
2006immersion2016, IAC, Villeurbanne
Le rêve, Musée Cantini, Marseille
Le temps de l'audace et de l'engagement, IAC, Villeurbanne
198920072016, Galerie Papillon, Paris

2015
Tu dois changer ta vie, Tripostal, Lille 3000, Lille
Constructeurs d'absurde, bricoleurs d'utopie, Abbaye St André centre d'art contemporain, Meymac
Futurs, La vieille charité, Marseille
Variable dimensions, Artists and Architecture, Pavillon de l'Arsenal, Paris
Trankat, Friche la belle de Mai, Marseille
Habiter, Domaine de Chamarande, Essonne

Le Manifeste De L'Arbre – ZABRISKIE POINT, Le musée de l'invisible, Genève
Archi-sculpture, Fondation Villa Datris, L'Isle-sur-la-Sorgue
Rêve Caverne, Château-Musée, Tournon-sur-Rhône

2014
Inside, Palais de Tokyo, Paris
Me and You in a Living Room, SongEun Art Space, Seoul
Double jeu, FRAC Centre, Orléans
Szenarien des unheimlichen, Kunstverein Neuhausen, Stuttgart
Dernières nouvelles de l'éther, La panacée, Montpellier
Berdaguer & Péjus, Olivier Peyricot, Galerie Mercier&associés, Paris
Art by telephone... recalled, La Panacée, Montpellier

2013
La tyrannie des objets, Galerie des Galeries, Paris
Perspectives, Pavillon Bosio, Monaco
Égarements, Château d'Avignon, Saintes-Maries-de-la-Mer
Entropia, Couvent des Minimes, Perpignan
Archipels réinventés 2, Le centre de la Vieille Charité, Marseille
Ulysses, l'autre mer, FRAC Bretagne, Rennes
Vous aussi vous avez l'air conditionné, Galeries Lafayette/St Ferréol, Marseille
Dialogues Art/Architecture, Paris/Los Angeles, Mak Center for Art and architecture, Schindler House, Los Angeles

2011
Le nouveau festival, Centre Pompidou, Paris
Terrible two, Villa du parc, Centre d'Art Contemporain, Annemasse
Projections, Musée de l'Abbaye Sainte-Croix, Sables d'Olonne
L'arbre de vie, Collège des Bernardins, Paris
Dreamland, Espace Paul Éluard, Cugnaux

2012
Pas encore, Galerie Sultana, Paris
Art by telephone...recalled, CNEAI, Paris/ESBA, Angers/CAPC, Bordeaux/Emily Harvey Fondation, New York/San Francisco Art Institute, San Francisco
Explorateurs, Musée Abbaye de Sainte Croix, Les Sables d'Olonne
Silence, FRAC Basse-Normandie, Caen
Les maîtres du désordre, Musée du quai Branly, Paris
Ciudad total, IVAM, Valence
Songe d'une nuit d'été, Musée d'art et d'histoire de Chinon, Chinon

2011
Les mille rêves de Stellavista, Centre d'Art la Synagogue de Delme, Delme
Ligue dissoute, Musée départemental de Gap, Gap
Erre, variations labyrinthiques, Centre Pompidou-Metz, Metz
La sculpture autrement, Musée National d'art Contemporain de Mougins, Mougins

베르다게르 & 페쥬

크리스토프 베르다게르 1968년생
마리 페쥬 1969년생
마르세유에서 활동

개인전

2018
〈보이지 않는 공동체들〉, 프리쉬 라 벨 드 메, 마르세유

2017
〈난감한 질문들〉, 갤러리 파피용, 파리
〈멕시코 68〉, 아르토라마, 메세나 뒤 쉬드, 마르세유
〈질료 없는〉, 르 나르시시오, 니스

2016
〈Y 40 (자기 복제)〉, 킬리리 공원, 파리

2015
〈베르다게르 & 페쥬〉, 라 마르살레리, 베르사유
〈성(城)이 없는 유형〉, 르 파르비, 타르브

2014
〈간질 정원〉, 설치 작품, 식물원, 몽펠리에
〈베르다게르 & 페쥬〉, 로앵 미술관, 뫼즈

2012
〈인술라〉, IAC, 빌뢰르반

2011
〈중독 정원〉, 실바칸 수도원, 라로크 당테롱
〈로자벨은 믿는다〉, 갤러리 드 마르세유, 마르세유

단체전

2018
〈집회〉, 델메 시너고그 아트센터, 델메

2017
〈추락하는 것들의 소음〉, FRAC PACA, 마르세유
〈유토피아/디스토피아〉, MAAT, 리스본
〈자연에서 조각으로〉, 빌라 다트리, 릴 쉬르 라 소르그

2016
〈2006롤업2016〉, IAC, 빌뢰르반
〈꿈〉, 칸티니 미술관, 마르세유
〈대담성과 현실의 시간〉, IAC, 빌뢰르반
〈198920072016〉, 갤러리 파피용, 파리

2015
〈당신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트리포스탈, 릴 3000, 릴
〈부조리한 건축자, 유토피아의 잡역부〉, 생 앙드레 성당 현대미술센터, 메이막
〈미래〉, 라 비엘 샤리테, 마르세유
〈가변 크기, 예술가들과 건축〉, 파비용 드 라르세날, 파리
〈트랑카〉, 프리쉬 라 벨 드 메, 마르세유
〈살아가기〉, 도멘 드 사마랑드, 예손
〈셋의 선언문 – 자브리스키 포인트〉,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박물관, 제네바
〈건축 조각〉, 빌라 다트리 재단, 릴 쉬르 라 소르그
〈꿈의 동굴〉, 성 미술관, 투롱 쉬르 론

2014
〈내부〉, 팔레 드 도쿄, 파리
〈Me and You in a Living Room〉,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더블 게임〉, FRAC 센터, 오희레앙
〈괴상한 사람들의 시나리오〉, 쿤스트페어아인 노이하우젠, 슈투트가르트
〈창공에서 온 최신 뉴스〉, 라 파나세, 몽펠리에
〈베르다게르 & 페쥬, 올리비에 페이리코〉, 갤러리 메르시에 & 아소시에, 파리
〈전화를 하는 예술... 회상하기〉, 라 파나세, 몽펠리에

2013
〈사물의 압제〉, 갤러리 데 갤러리즈, 파리
〈인식〉, 파비용 보시오, 모나코
〈의혹〉, 아비뇽 성, 생트 마리 드 라 메르
〈엔트로피아〉, 미니메 수녀원, 페르피냥
〈재발명한 군도 2〉, 비에일르 샤리테 센터, 마르세유
〈올리시스, 다른 바다〉, FRAC 브르타뉴, 렌
〈당신도 에이컨이 있군요〉, 갤러리 라파에트/생 페레올, 마르세유
〈예술/건축에 대한 대화〉, 파리/로스앤젤레스, 맥 미술건축센터, 친들러 하우스, 로스앤젤레스
〈팝업〉, 일본 프랑스문화원, 도쿄
〈새로운 페스티벌〉, 풍피두 센터, 파리
〈꼭찍한 돌〉, 빌라 뒤 파르크, 현대미술센터, 안스마스
〈투사〉, 생트 크루아 대성당 미술관, 사블르 돌론느
〈생명의 나무〉, 베르나르댕 대학교, 파리
〈드림랜드〉, 폴 엘퀴아르 스페이스, 퀴노

2012
〈아직은 아니야〉, 갤러리 솔타나, 파리
〈전화를 하는 예술... 회상하기〉, CNEAI, 파리/ESBA, 앙제/CAPC, 보르도/에밀리 하비 재단, 뉴욕/샌프란시스코 예술협회, 샌프란시스코
〈탐험가들〉, 생트 크루아 대성당 미술관, 사블르 돌론느
〈침묵〉, FRAC 바노스르망디, 캉
〈혼돈의 주인들〉, 케 브랑리 박물관, 파리
〈최대 도시〉, IVAM, 발렌시아
〈한여름 밤의 꿈〉, 시능 예술역사박물관, 시능

2011
〈스텔라 비스타의 천 가지 꿈〉, 델메 시너고그 아트센터, 델메
〈홀어지는 리그〉, 갑 카운티 미술관, 갑
〈오류, 미로 같은 변형〉, 메츠 풍피두 센터, 메츠
〈다른 방식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무쟁

YUN CHOI

b. 1989
Lives and works in Seoul

Solo exhibitions

2017
Hanaco, Yunyunchoi, Choi Yun's Solo Exhibition, Art Sonje Center Project Space, Seoul

2015
The Shape of Today, 153th Nuha-dong, Seoul

2012
Transparent Face, Inter Art Center, Malmö

Group exhibitions

2017
Seoul Focus 25.7, SeMA,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Abstraction, Hapjungjigu, Seoul
UNDERBELLY ARTS, online exhibition, Sydney
Beyond Freedom, documentation and response exhibition of R:ead, Unit 12, Cattle Deport Artist Village, Hong Kong
A Snowflake, Kukje Gallery, Seoul
Retracing the essence of Tengri, Zaha Museum, Seoul
Shame on You,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Seoul Focus, No Longer Objects, SeMA,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X: 1990's Korean Art in the Ninetie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Who's Who, Audio Visual Pavilion/Walely Art, Seoul/Taipei
Swallow flies Dragon wakes, Two-persons Show (Rho Jae Oon, Choi Yun), Sansumunhwa, Seoul
SeMA Blue, Seoul Babe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5
/documents, Audio Visual Pavilion, Seoul
Patch Notes, Gyoyokso, Seoul
Broadcasting Tower, Aglow Space, Tainan
Outside of Timeline, Space Now Here, Seoul
AUTOSAVE: When It looks It Is Over, Common Center, Seoul

2014
Riding at Dawn,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
When the Future Ended, HITE collection, Seoul

2012
Found Belonging, KHM, Malmö Art Academy, Malmö
On the Screen Within the Screen, Inter Art Center, Malmö

최윤

1989년생
서울에서 활동

개인전

2017
〈하나코, 윤윤최, 최윤 개인전〉,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5
〈오늘의 모양〉, 누하동 153번지, 서울

2012
〈투명하서 면〉, 인터 아트 센터, 말뫼

단체전

2017
〈서울포커스, 25.7〉, 북서울미술관, 서울
〈추상〉, 합정지구, 서울
〈UNDERBELLY ARTS〉, 온라인 전시, 시드니
〈Beyond Freedom〉, 유닛 12 캐틀 디포트 아티스트 빌리지, 홍콩
〈A Snowflake〉, 국제갤러리, 서울
〈하늘 본풀이〉, 자하미술관, 서울
〈Shame on You〉, 두산 갤러리 뉴욕, 뉴욕
〈서울포커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북서울미술관, 서울
〈X: 1990년대 한국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Who's Who〉, Walely Art/시창각, 타이베이/서울
〈비연경룡, 용이 날고 제비가 놀라다〉, 노재운 최윤 2인전, 산수문화, 서울
〈SeMA Blue, 서울 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documents〉, 시창각, 서울
〈수정사항〉, 교역소, 서울
〈Broadcasting Tower〉, 어글로우 스페이스, 타이난
〈타임라인의 바깥〉, 지금여기, 서울
〈오토세이브: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커먼센터, 서울

2014
〈새벽질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미래가 끝났을 때〉,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2
〈발전된 소유물〉, 말뫼 아트 아카데미, KHM, 말뫼
〈스크린 위에 스크린 안에〉, 인터 아트 센터, 말뫼

JULIEN CREUZET

b. 1986
Lives and works in Montreuil

Solo exhibitions

2018
Toute la distance de la mer (...), Fondation Ricard, Paris
La pluie a rendu cela possible (...), Bétonsalon, Paris

2017
Document Gallery, Chicago

2016
Present Future, Artissima International Fair of Contemporary Art, Torino
Jangal (...) Mon dawa, Galerie Dohyang Lee, Paris
Cet ailleurs, qui rejaillit en moi, lorsque je suis là (...), National Superior School of Art and Design of Nancy, Nancy

2015
Opéra-archipel, ma peau rouge, henné, FRAC Basse-Normande, Caen

2013
Standard and poor's, le nouveau monde, Galerie Dohyang Lee, Paris
Standard and poor's, Toi, Tâche, Trauma, De là-bas, Espace d'art contemporain Camille Lambert, Juvisy-sur-Orge

2012
Standard and poor's, Capitalis, Estatuas, Galerie Hypertopie, Caen
Standard & Poor's, on the Way, the Price of Glass,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Turin

Group exhibitions

2018
NADA – Document Gallery, New York
Le Paradoxe de l'iceberg, Frac île-de-France – Frac Grand Large, le château de Rentilly, Bussy-Saint-Martin
Ailleurs est ce rêve proche, La Villa du Parc, Annemasse

2017
Biennale des Rencontres de Bamako, Mali
Biennale de Lyon, Lyon
Performing the Border, Kunstraum Niederoesterreich, Vienna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ntimacy as Text, Museum of Modern Art, Varsovie
La Sfinge Nera The Black Sphinx From Morocco To Madagascar, Primo Marella Gallery, Milan
Le jour qui vient, Galerie des Galeries, Paris
Traversées, Hors Pistes, Centre Pompidou, Paris
Corps sans tête, un lendemain difficile, Maëlle Galerie, Paris

2016
Figure, blank projects, Cape Town
Ateliers Internationaux, Journal d'un travailleur métèque du futur, FRAC Pays de la Loire, Carquefou
Sous le soleil exactement. Coucher de soleil et lever de rideau, Centre d'Art Bastille, Grenoble
Kampala Art Biennale, Kampala 12ème Biennale de l'Art contemporain Africain de Dakar, Dakar

2015
Officiel Art Fair 2015, Cité de la mode et design, Paris

YIA Art Fair 2015, Carreaux du Temple, Paris
15e salon régionale de la zone Pacifique de Colombie, Cali
ENTRY PROHIBITED TO FOREIGNERS, Havremagasin et, Boden
Scroll infini, La Galerie, centre d'art contemporain, Noisy-le-Sec

2014
La interrupción de la siesta avec le collectif La Nocturna, ArteCámara, Bogotá
Polyform, G8, Cité internationale de Arts, Paris

2013
Panorama 2013, Le Fresnoy, Tourcoing
ANW BARA KOW, Les choses de chez nous, Galerie Dohyang Lee, Paris

2012
Jeune Création 2012, Le 104, Paris
CDD, Galerie 360 m3, Lyon
Le spectre visible, Ou Galerie, Marseille
Sans les murs, Conseil Régional Basse-Normandie

YOUNG-GYU JANG

b. 1968
Lives and works in Seoul

Young-gyu Jang, a musician, composer, and member of Uhuhboo Project, Ssing Ssing, and Be-Being, has been involved in numerous projects in the fields of film, theater, dance, and visual art since the late 90s. He has shown experimental musical tendencies through textures of sound and segments of rhythm. Recently, he has been attempting to study the areas of traditional instruments, sounds and performances and to realize new structures of tradition by connecting them with contemporary music.

장영규

1968년생
서울에서 활동

뮤지션이자 작곡가인 장영규는 어어부 프로젝트, 씽씽, 비빙 멤버이자, 90년대 후반부터 영화, 연극, 무용, 시각예술 분야의 수많은 작품들에 참여해왔다. 소리의 텍스처와 리듬의 분절을 통한 실험적인 음악 성향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통 악기나 소리, 퍼포먼스의 영역을 연구하고 동시대 음악을 접합하여 전통의 구조를 새로이 인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TARIK KISWANSON

b. 1986
Lives and works in Paris

Solo exhibitions
<p>2018 <i>AS DEEP AS I COULD REMEMBER, AS FAR AS I COULD SEE</i>, Lafayette Anticipations, Fondation Galeries Lafayette, Paris <i>Come, come, come of age</i>, Fondation d'entreprise Ricard, Paris</p>
<p>2017 الزهور لوالدي <i>Flowers for my father</i>, carlier gebauer, Berlin <i>ALL THE THINGS MY EYES DON'T SEE</i>, Biennale de Lyon, Musée Galloromain de Saint-Romain-en-Gal, Vienne</p>
<p>2016 <i>ONGOING REFLECTION – You, Me, So Many.</i>, Collège des Bernardins, Paris <i>CONTACT SHEET</i>, carlier gebauer, Berlin <i>Hard Feelings</i>, Institut Culturel Suédois, Paris</p>
<p>2015 <i>See eye to eye</i>, Les Bains-Douches Centre d'art, Alençon <i>No Hard Feelings</i>, Almine Rech Gallery, Paris <i>No man is an Island</i>, Galerie 9, Camouffleur, Lille</p>
<p>2014 <i>Gently told</i>, Somehow Believed, La friche belle de mai, Marseille <i>Embrayeur</i>, DNSAP,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 Arts de Paris, Paris</p>
Group exhibitions
<p>2018 <i>The Way Things Run (Der Lauf der Dinge), Part 1: Loose Ends Don't Tie</i>, PS120, Berlin <i>Salle des Pas-Perdus</i>, DOC, Paris</p>

2017
Flatlands II, MUDAM – Musée d'art moderne Grand-Duc Jean, Luxembourg City
dispositiv (1) fortlaufend, carlier | gebauer, Berlin
Old Dream, collection Dorith and Serge Galuz, Mains d'oeuvres, Saint-Ouen
Modern Sculptur, Galeria Casado Santapau, Madrid

2016
Flatlands, MRAC – Musée Régional d'Art Contemporain, Sérignan
DE LEUR TEMPS (5), IAC – Institut d'Art Contemporain, Villeurbanne/Rhône-Alpes
D'autres possibles, Le Pavillon Vendôme - Centre d'Art Contemporain, Paris
Equilibre instable, Musée de Libourne, Libourne
Sèvres Outdoors 2016, Sèvres – Cité de la céramique, Sèvres
CHOICES, Palais de Tokyo, Paris
Moly-Sabata, Fondation Albert Gleizes, Berryer
Le cabaret au salon, Beffroi Montrouge, Paris

2015
The Housebreaker, Riga Art Space, Riga
Les Mains Libres, Espace 251 Nord, Liège
Les voyageurs, Palais des Beaux-Arts, Paris
Compositions, Metropolitan Art Society, Beirut
Galerie Untilthen, Saint-Ouen, Paris
60ème Salon de Montrouge, Montrouge

2014
Cache cache cache, L'île, Paris (et pour) quelques minutes de plus, La Générale en Manufacture, Paris

2013
L'Ange de l'Histoire, Achievement, Belvédèr, Palais des Beaux Arts, Paris

타리크 키스완손

1986년생
파리에서 활동

개인전
<p>2018 〈기억할 수 있는 한 깊게, 볼 수 있는 한 멀리〉, 라파에트 앙티파시옹, 갤러리 라파에트 재단, 파리 〈오라, 오라, 성년이어 오라〉, 리카르 재단, 파리</p>
<p>2017 〈내 아버지를 위한 꽃〉, 카를리에 게바우어, 베를린 〈내 눈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 리옹 비엔날레, 생 로맹 앙 갈 로로망 박물관, 비엔</p>
<p>2016 〈진행 중인 성찰 – 당신과 나, 다수.〉, 베르나르댕 대학교, 파리 〈컨택트 시트〉, 카를리에 게바우어, 베를린 〈악감정〉, 스웨덴문화원, 파리</p>
<p>2015 〈눈을 똑바로 봐〉, 레 뱅 두세 아트센터, 알랑송 〈언짱게 생각하지 마〉, 알민 레쉬 갤러리, 파리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갤러리 9, 캐머플러, 릴</p>
<p>2014 〈부드럽게 말하면, 웬지 믿어진다〉, 프리쉬 라 벨 드 메, 마르세유 〈연동장치〉, DNSAP,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p>
단체전
<p>2018 〈사물이 가는 길 – 1부: 느슨한 끄트머리는 묶이지 않는다〉, PS120, 베를린 〈잃어버린 발자국의 방〉, DOC, 파리</p>

2017
〈평지 II〉, MUDAM –그랑 뒤장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가변적인 (1) 연속적인〉, 카를리에 게바우어, 베를린
〈오래된 꿈〉, 도리스, 세르주 갈뤼즈 컬렉션, 앙 뒤브르, 생투앵
〈현대 조각〉, 갤러리 카사도 산타파우, 마드리드

2016
〈평지〉, MRAC –지역 현대미술관, 세리냥
〈그들의 시간으로부터 (5)〉, IAC – 현대미술협회, 빌리르반/론알프
〈다른 가능성〉, 르 파비용 방돔 – 현대미술센터, 파리
〈불안정한 균형〉, 리부른 미술관, 리부른
〈세브르 아웃도어스 2016〉, 세브르 도자기 박물관, 세브르
〈선택들〉, 팔레 드 도쿄, 파리
〈플리-사바타〉, 알베르 클레이즈 재단, 베리에
〈살롱의 카바레〉, 베프루아 몽루주, 파리

2015
〈가택 침입자〉, 리가 아트 스페이스, 리가
〈자유 재량〉, 스페이스 251 노르, 리에주
〈여행자들〉, 파리 국립미술학교 미술관, 파리
〈구성〉, 메트로폴리탄 미술협회, 베이루트
갤러리 언틸덴, 생투앙, 파리
60회 몽루주 페어, 몽루주
〈숨어 숨어 숨어〉, 디 아일랜드, 파리
〈그리고 몇 분 더〉, 라 제네랄 앙 마누팍튀르, 파리

2014
〈육체적인〉, 루 드 라 피델리테, 파리
〈창공〉, 브라운스톤 재단, 파리

2013
〈역사의 천사, 성취〉, 벨베데르, 파리 국립미술학교 미술관, 파리

MIRE LEE

b. 1988
Lives and works in Seoul and Amsterdam

Solo exhibitions
<p>2014 <i>War is Won by Sentiment Not by Soldiers</i>, Insa Art Space, Seoul <i>Front View of Omissions</i>, onground_jisangso, Seoul</p>
Group exhibitions
<p>2017 <i>It is a lover who speaks and says</i>, 홈세션, 바르셀로나 <i>It is a lover who speaks and says, Homesession</i>, Barcelona <i>Moving/Image</i>, Arko Art Center, Seoul <i>Mobile</i>, Doosan Gallery, Seoul <i>A Snowflake</i>, Kukje Gallery, Seoul <i>Read My Lips</i>, Hapjeongjigu, Seoul <i>Do it 2017 Seoul</i>, Ilmin Museum of Arts, Seoul <i>The Cameraperson</i>, Gallery175, Seoul</p>
<p>2016 <i>Kim Kim Art Fair – Lava come back to me!</i>, Yangpyeong <i>Art in the Shops</i>, APAP5,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i>The art of not landing</i>, Cake Gallery, Seoul <i>NERIRI KIRURU HARARA</i>, SeMA Biennial Mediacity Seoul, Seoul Museum of Arts, Seoul <i>Andrea</i>,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i>Old Tactics New Pleasure</i>, Rue Geoffrey l'Assnier 20, Paris</p>
<p>2015 <i>GOODS 2015</i>,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i>Long Armed Sculpture and Space for Autonomy</i>, Space 413, Seoul <i>Flat Repository</i>, Take Out Drawings, Seoul <i>Byoil noons</i>, Barim, Gwangju</p>
<p>2014 <i>Trunk Gallery Window Project</i>, Trunk Gallery, Seoul</p>
<p>2013 Showcase 99°C+1, Seoul Art Space_Seogyo, Seoul</p>

이미래

1988년생
서울과 암스테르담에서 활동

개인전
<p>2014 〈낭만행취〉, 인사미술공간, 서울 〈앞에서 본 누락〉, 온그라운드_지상소, 서울</p>
단체전
<p>2017 〈It is a lover who speaks and says〉, 홈세션, 바르셀로나 〈무빙/이미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모빌〉, 두산갤러리, 서울 〈A Snowflake〉, 국제갤러리, 서울 〈Read My Lips〉, 합정자구, 서울 〈Do it 2017, 서울〉, 일민미술관, 서울 〈The Cameraperson〉, 갤러리175, 서울</p>
<p>2016 〈킴킴아트페어 Lava, Come back to me!〉, 양평 〈상징 속 예술〉, APAP5,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 〈복행술〉, 케이크갤러리, 서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미디어시티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안드레아〉,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오래된 전략 새로운 즐거움〉, Rue Geoffrey l'Assnier 20, 파리</p>
<p>2015 〈굿-즈 2015〉, 세종문화회관, 서울 〈팔이 긴 모터 조각과 자존을 생각한 공간〉, 공간413, 서울 〈납작한 저장소〉,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8요일에 눈이 밝아진다〉, 바림, 광주</p>
<p>2014 〈트렁크 갤러리 원도우 프로젝트〉, 트렁크 갤러리, 서울</p>
<p>2013 〈99°C+1〉 쇼케이스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p>

LEONARD MARTIN

b. 1991
Lives and works in Paris and Lille

Exhibitions

2018

Jeune Création, 68th Edition, Les Beaux-Arts de Paris, Paris
Beaux-Arts de Paris, Paris Dauphine Prize, (Hors) Cadre, Paris-Dauphine University, Paris
Festival 100%, La Villette, Grand Halle, Paris
Icart Prize, Elephant Paname, Paris

2017
Rêvez #2, Lambert Collection in Avignon, Avignon
Panorama 19, Le Fresnoy – Studio National des Arts Contemporains, Tourcoing
Invited artist at Centre Pompidou-Metz, Metz

2016
Salon de Montrouge, 61th Edition, Montrouge
Panorama 18, Le Fresnoy – Studio National des Arts Contemporains, Tourcoing
Félicités 2015, Les Beaux-Arts de Paris, Paris
Vol.2: Curiosités, Sans titre (2016), Paris
Only Lovers, Le Coeur, Paris
Dernières Démarques, Galerie du Crous, Paris

2015
Transmission, récréation, répétition, Les Beaux-Arts de Paris, Paris

레오나르 마르탱

1991년생
파리와 릴에서 활동

전시

2018
제68회 젊은 작가 선정, 보자르 드 파리, 파리
도핀 상, 〈(그 밖의) 프레임〉,파리도핀대학, 파리
100% 페스티벌, 라 빌레트 공원, 그랜드 홀, 파리
이카르트 상, 엘리펀트 파남, 파리

2017
〈꿈꾸어라 #2〉, 랑베르 컬렉션, 아비뇽
파노라마 19, 르 프레누아 –국립 현대미술 스튜디오, 투르쿠양
메츠 풍피두 센터 초빙 아티스트, 메츠

2016
살롱 드 몽루주, 61회 몽루주 페어
〈파노라마 18〉, 르 프레누아 –국립 현대미술 스튜디오, 투르쿠양
〈지극한 기쁨 2015〉, 보자르 드 파리, 파리
〈Vol.2: 호기심〉, 상 티트르 (2016), 파리
〈연인들뿐〉, 르 코르, 파리
〈마지막 할인〉, 갤러리 뒤 크루, 파리

2015
〈전달, 재창조, 반복〉, 보자르 드 파리, 파리

HAO NI

b. 1989
Lives and works in Hsin Chu City

Solo exhibitions

2016
Strategic Ambiguity, Peligro Amarillo/Santurce, San Juan
Sleep Mode, Taiwan Academy, Los Angeles
Light Studies, 18th Street Arts Center, Santa Monica

2015
Ghost Hit Wall, Yellow Peril Gallery, Providence

2013
Proximity, Yellow Peril Gallery, Providence

2011
You Have Your Fortress, I Have Mine, Pop Up Art Loop, Chicago

Two person exhibitions

2016
Gently Weeps, Sleep Center, New York

2015
Accidental Translation, Fjord, Philadelphia

Group exhibitions

2017
OPEN (C)ALL: TRUTH, BRIC, Brooklyn Dwelling, Rockland Center for the Arts, West Nyack
Psychic Dream Girls, Spring/Break art fair, New York
Vestigial Future, CAAC gallery, New York

2016
Fertile Solitude, Boston Center for the Arts, Boston

2015
Retina of the Unconscious,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 New York

2014
Taipei Arts Awards, Taipei Fine Arts Museum, Taipei
Collectors III: Discerning Eyes, New Bedford Art Museum, New Bedford
Governor Island Art Fair, Governor Island, NY
Roving Room, Habersham Mills, Demorest
Scope Art Fair with Yellow Peril Gallery, New York

2013
Model Minority, Scope Art Fair, Miami
Work Harder, Yellow Peril Gallery, New York
Transmediation, Stephan Stoyanov Gallery, New York

2012
With Other People, With Other Sons, Heaven Gallery, Chicago
B.A.D, Beverly Art Center, Chicago

2011
Wood Worked, Chicago Urban Art Society, Chicago
Visual Narration: Contemporary Forms of Storytelling, Robert Bills Contemporary, Chicago

하오니

1989년생
신주에서 활동

개인전

2016
〈전략적인 모호성〉, 펠리그로 아마릴로/산투르세, 산후안
〈수면 모드〉, 타이완 아카데미, 로스앤젤레스
〈빛 연구〉, 18번가 아트센터, 산타모니카

2015
〈유령이 벽에 부딪히다〉, 옐로 페릴 갤러리, 프로비던스

2013
〈근접성〉, 옐로 페릴 갤러리, 프로비던스

2011
〈당신은 당신의 성이 있고 내게는 나의 성이 있다〉, 팝업 아트 루프, 시카고

2인전

2016
〈가만히 울다〉, 수면 센터, 뉴욕

2015
〈우연한 번역〉, 피요르드, 필라델피아

단체전

2017
〈오픈 (코)울: 진실〉, 브릭, 브루클린
〈주거지〉, 로클랜드 예술 센터, 웨스트 나이액
〈사이릭 드림 걸스〉, 스포링/브레이크 아트 페어, 뉴욕
〈흔적으로 남은 미래〉, CAAC 갤러리, 뉴욕

2016
〈비옥한 고독〉, 보스턴 예술 센터, 보스턴

2015
〈무의식의 망막〉, 살비아 월드 앤드 포 김 아트 갤러리, 뉴욕

2014
타이베이 예술상, 타이베이 미술관, 타이베이
〈컬렉터스 III: 분별력 있는 눈〉, 뉴 베드퍼드 미술관, 뉴 베드퍼드
거버너 아일랜드 아트 페어, 거버너 아일랜드, 뉴욕
〈로빙 룸〉, 허버상 밀스, 데모레스트
스코프 아트 페어, 뉴욕

2013
〈모델 마이너리티〉, 스코프 아트 페어, 마이애미
〈더 열심히 일해〉, 옐로 페릴 갤러리, 뉴욕
〈매체 변환〉, 슈테판 스토아노프 갤러리, 뉴욕

2012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들과〉, 헤븐 갤러리, 시카고
〈B.A.D〉, 베벌리 아트센터, 시카고

2011
〈목재 작업〉, 시카고 어번 아트 소사이어티, 시카고
〈시각적 내레이션: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의 형태들〉, 로버트 빌스 컨템포러리, 시카고

LOUISE SARTOR

b. 1988
Lives and works in Paris

Solo exhibitions

2018
Off Season, Bel ami, Los Angeles

2017
Left on read √, Crèvecoeur, Paris

Group exhibitions

2018
Anti-Aging im Mittelalter, duo show with Signe Rose, Galerie der Stadt Shwaz, Shwaz

2017
Voyage d’hiver, Palais de Tokyo off-site, Château de Versailles, Versailles
Apropos l’Hiver, Bel Ami, Los Angeles
Le monde est emplí de résonances, Palais de Tokyo off-site, Château de Villeneuve-Lembron, Villeneuve-Lembron
Liste, Basel, with Crèvecoeur
Upstream, François Ghebaly Gallery, Los Angeles
Peindre, dit-elle, Musée des Beaux-Arts de Dole, Dole
group show, Tonus, Paris

2016
Paris Internationale, with Crèvecoeur, Paris
18ème prix fondation d’entreprise Ricard, Fondation d’entreprise Ricard, Paris
Demimonde, Treignac Projet, Treignac
The Old Things, Crèvecoeur, Paris

2015
9800 Sepulveda, Los Angeles
Sometimes my way is more important than the truth, two-persons exhibition with Signe Rose,Tonus, Paris
Là où sont mes pieds je suis à ma place, Paramount Ranch (with Shanaynay), Los Angeles
Model, graduation show,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 Arts de Paris, Paris

2014
/DATA/CENTER, abri Lefèbvre, Paris

2013
Boiled Angel, Woodmill, London
Weil Ich bin es Wert, HHDM, Vienna.

2012
Nein Teen #1, online exhibition, One Night Only Gallery, Oslo

루이즈 사르토르

1988년생
파리에서 활동

개인전

2018
〈비수기〉, 벨 아미, 로스앤젤레스

2017
〈내 문자를 보고도 답을 안 하네 √〉, 크레브뢰르, 파리

단체전

2018
〈중세의 안티에이징〉, Signe Rose와 2인전, 슈워츠시립미술관, 슈워츠

2017
〈겨울 여행〉, 팔레 드 도쿄 오프사이트,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겨울에 관하여〉, 벨 아미, 로스앤젤레스
〈세상은 울림으로 가득하다〉, 팔레 드 도쿄 오프사이트, 빌뇌브-랭브론 성, 빌뇌브-랭브론 리스트 아트 페어, 바젤, 크레브뢰르
〈상류로〉, 프랑수아 게발리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그림, 그녀가 말한다〉, 돌 미술관, 돌
〈단체전〉, 토누스, 파리

2016
파리 국제 아트 페어, 크레브뢰르와 함께, 파리
18회 리카르 재단 상, 리카르 재단, 파리
〈철반의 세계〉, 트레냐 프로젝트, 트레냐
〈오래된 것들〉, 크레브뢰르, 파리

2015
9800 세풀베다, 로스앤젤레스
〈때로는 내 방식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 Signe Rose와 2인전, 토누스, 파리
〈내 발이 닿는 곳이 내가 속한 곳이다〉, 파라마운트 랜치, 사네이네이 부스, 로스앤젤레스
〈모델〉, 졸업 전시,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

2014
〈/데이터/센터〉, 아브리 르페브르, 파리

2013
〈Boiled Angel〉, 우드밀, 런던
〈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HHDM, 비엔나

2012
〈Nein Teen #1〉, 온라인 전시, 원나이트 온리 갤러리, 오슬로

